

일자리

I. 일자리 정책

- 2013년도 최저임금(안) 시급 4,860원(6.1% 인상) 표결 처리(2012.6.29.)
-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2012.7.2.)
 - 고용노동부는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휴업이 1년간 통산하여 2개월 이상이거나,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정·고시함.
 -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유와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정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됨.
 - ① 사업장의 휴업·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간의 휴업·휴직이나 폐업·도산의 확정,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공사 종료 또는 사업 완료 등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 ②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 ③ 사용자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12.7.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8월 2일부터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임.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08년 6월에 이미 도입된 제도이나,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능했음. 그러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최대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관계부처 합동 계획 수립·발표 (2012.7.5.)**

- 정부는 7월 5일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을 논의
-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 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
 -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 교육 이수 유도,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
-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
-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감사하는 대한민국' 전파를 위한 해외봉사 활동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1만 명 돌파

- 지난 1월 22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6월 말에 1만 명을 넘어섰고 7월 8일까지 12,531명이 가입한 상태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 등록일 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제도를 시행한 1월 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7월 21일까지는 가입을 해야 함.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 가입대상: 임의가입 방식으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혜택
 - 가입자가 택한 기준 보수에 따라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 90~180일 동안 기준 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
 -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폴리텍대학,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를 위한 MOU체결(2012.7.12.)**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 협력, 전문가 인적 교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이용 편의 제공, 각종 콘텐츠 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함.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함께하기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2012.7.18.)**
 -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낸 기업의 사례를 널리 알리고,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이 마련
 - 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업은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디와이엘라센, (주)리차드(이상 일자리 함께하기), 한국고용정보, 미래복지법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상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총 6곳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2012.7.26.)**
 -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
 -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명시: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사유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
 -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

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여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 수급권 강화
 - 사용자가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
 -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 부과
 - DB형 재정 검증을 강화하고 최소적립비율 상향
 - 우체국 예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 시장질서 확립
 -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과열·혼탁 경쟁을 막음.
 - 합리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워크넷 대국민 패널」 24명 선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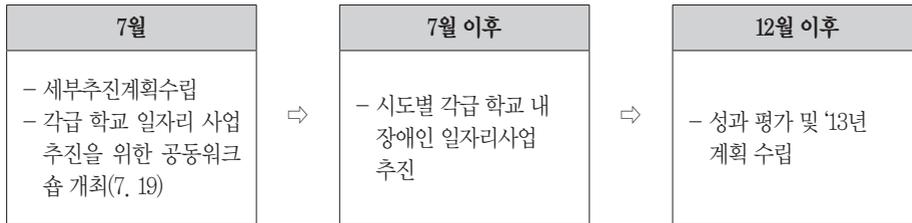
-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한민국 대표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워크넷 대국민 패널을 선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 워크넷 대국민 패널은 워크넷 등에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받은 후 워크넷 이용 경험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총 24명을 선발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졸자 등 청년 취업준비생(5명)과 30~40대 구직자(10명), 경력단절 여성(4명), 기업체 인사담당자(5명) 등으로 구성하였음.
- 대국민 패널은 매월 보고서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워크넷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도입할 만한 서비스 등을 제안

□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워크숍 개최(2012.7.19.)

-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이 어려운 특수학교(급) 장애 학생의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

리사업 워크숍을 개최

-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그동안 교육 장소로만 생각했던 학교를 “장애 학생 취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추진



□ 50인 이상 사업장,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고용부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힘.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임.
 - ①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 ②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예: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 등)
 - ③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 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

- 근로복지공단이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7월

26일부터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까지 사업대상 범위 확대
 -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54%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률(69.75%)에 비해 크게 낮음(2012.5월 기준). 이에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권유하는 역할을 하는, 믿을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표 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대상 범위 변화

구분	4인 이하	30인 이하	확대 범위
사업장 수(개소)	963,366	1,444,359	480,993
근로자 수(명)	1,041,246	4,289,931	3,248,685

□ 2013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고시(2012.8.1.)

-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7%인 2,582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8월부터 구직자도 인터넷원격훈련 수강료 지원

-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우리나라 최대 이러닝 사업주단체인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 한국이러닝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구직자를 위한 이러닝(인터넷원격훈련)을 지원

- 올해는 경영, 회계, 정보통신 등 이터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위주로 실시. 8월에는 이들 분야의 46개 훈련과정이 제공되며 연말까지 100여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
- 수강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지정사이트(www.jobgo.ne.kr, www.daumjob.com)에 접속하면 됨.
- 훈련과정을 수료한 구직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55~100%를 지원받음.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도입 시행

-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용자를 통해 체불입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
- 올해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 가능
 -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 원 한도로 총 5,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용자
 - 다만, 사업주의 체불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용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 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
 - 사업주가 용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2012.8.7.)-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

- 금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변경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되며,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은 동일하게 부여

표 2. 고용보험법 개정안 주요내용

대상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제1호	65세 이상인 자 실업급여 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새롭게 <u>고용된 자</u>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39조	65세가 되기 전 실업한 자는 65세가 되더라도 계속 실업급여 적용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u>삭제</u>

□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등 「보험료징수법」 입법예고(2012.8.7.)

-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
- 전체 재해자 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 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

II. 일자리 통계

◆ 2012년 7월 일자리 동향(경제활동 인구조사 7월 원자료)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현황 개선

- 2012년 7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9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 8천 명 증가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취업자는 2,510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만 명 증가
-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7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2천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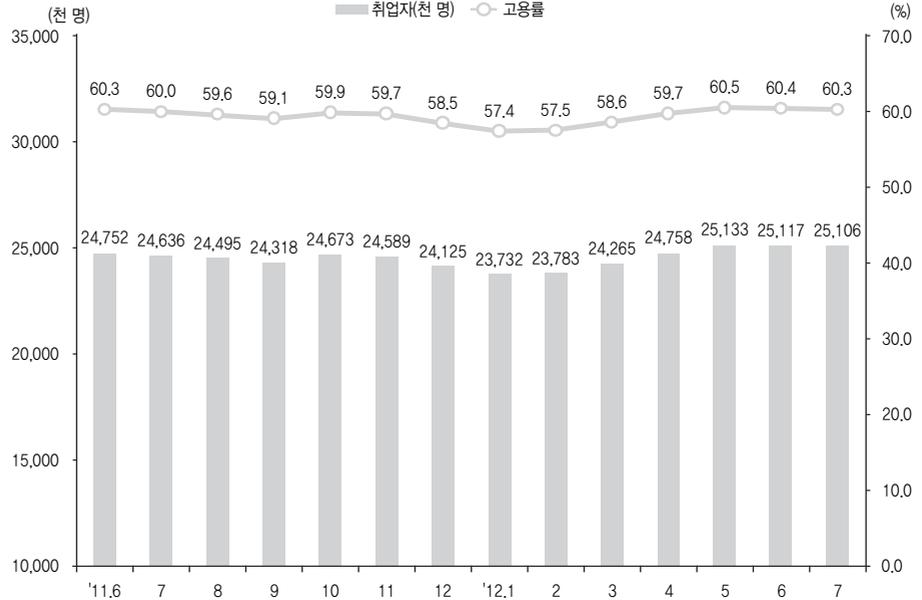
표 3. 주요 고용 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1,087	1.2	41,561	1.3	41,629	541	1.3
- 경제활동인구	25,473	1.0	25,939	1.4	25,901	428	1.7
참가율	62.0		62.4		62.2	0.2p	
· 취업자	24,636	1.4	25,117	1.5	25,106	470	1.9
고용률	60.0		60.4		60.3	0.3p	
· 실업자	837	-10.1	822	-2.1	795	-42	-5.0
실업률	3.3		3.2		3.1	-0.2p	
- 비경제활동인구	15,614	1.5	15,622	1.2	15,727	113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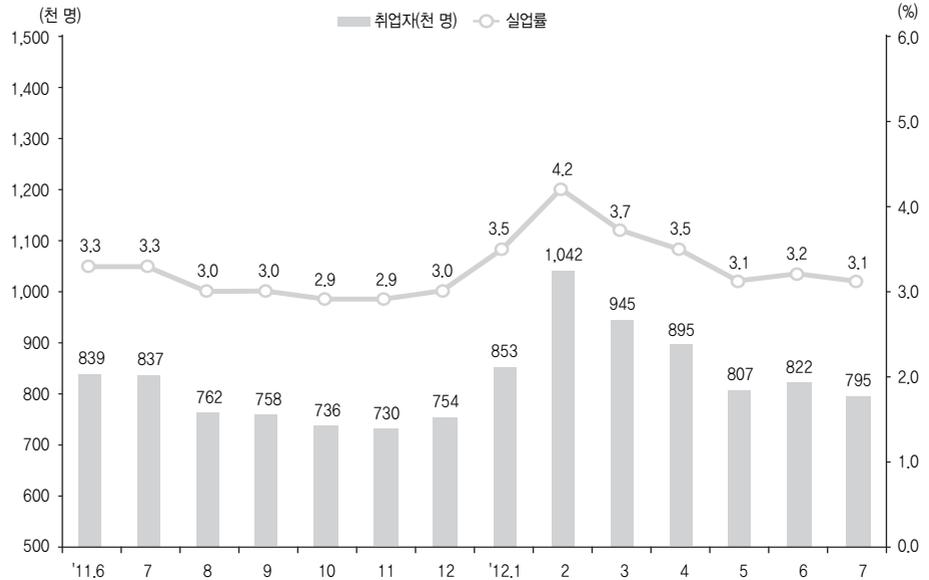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8), 『2012년 7월 고용동향』

그림 1. 취업자와 고용률추이



자료: 통계청(2012.8), 「2012년 7월 고용동향」

그림 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2.8), 「2012년 7월 고용동향」

□ 남·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며 남자의 증가율이 보다 뚜렷

- 성별 고용률은 남자 71.6%, 여자 49.5%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5%p, 0.2%p 상승
 - 취업자는 남자의 경우 1,45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6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53만 9천 명으로 19만 4천 명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20대 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 취업자는 20대에서 2만 5천 명, 40대에서 1만 9천 명이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층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50대에서 27만 5천 명, 60대 이상에서 25만 1천 명 증가

표 4.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24,636	60.0	25,117	60.4	25,106	60.3	470	0.3p
성별	남자	14,292	71.3	14,542	71.6	14,568	71.6	276	0.5p
	여자	10,345	49.3	10,575	49.8	10,539	49.5	194	0.2p
연령	15~29세	4,028	42.0	3,868	40.7	3,998	42.1	-30	0.1p
	· 15~19세	286	8.5	214	6.5	282	8.5	-5	0.0p
	· 20~29세	3,742	60.1	3,654	59.0	3,717	60.0	-25	-0.1p
	30~39세	5,791	72.3	5,784	73.2	5,785	73.2	-7	0.9p
	40~49세	6,663	79.0	6,687	79.2	6,644	78.6	-19	-0.4p
	50~59세	5,117	71.8	5,432	73.4	5,392	72.5	275	0.7p
	60세 이상	3,038	38.3	3,346	40.2	3,288	39.4	251	1.1p
학력	중졸 이하	5,029	40.7	5,118	41.7	5,038	41.1	9	0.4p
	고졸	9,826	62.2	9,744	61.9	9,844	62.1	18	-0.1p
	전문대졸	3,107	74.3	3,383	75.0	3,344	75.2	238	1.0p
	대졸 이상	6,674	76.4	6,872	76.0	6,879	76.0	205	-0.4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일용근로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1,791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719만 6천 명으로 3.3% 증가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7.5% 감소
 -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6천 명, 3.5% 증가

표 5.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 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24,636	100.0	25,117	100.0	25,106	100.0	470	1.9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667	71.7	17,932	71.4	17,911	71.3	244	1.4
	-상용근로자	10,718	43.5	11,157	44.4	11,153	44.4	435	4.1
	-임시근로자	5,137	20.9	5,094	20.3	5,081	20.2	-56	-1.1
	-일용근로자	1,811	7.4	1,681	6.7	1,676	6.7	-135	-7.5
	비임금근로자	6,969	28.3	7,185	28.6	7,196	28.7	227	3.3
	-자영업자	5,667	23.0	5,837	23.2	5,863	23.4	196	3.5
	-무급가족종사자	1,302	5.3	1,348	5.4	1,333	5.3	31	2.4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3,562	14.5	3,196	12.7	3,564	14.2	2	0.1
	36시간 이상	20,602	83.6	21,613	86.0	21,134	84.2	531	2.6
	일시 휴직	472	1.9	309	1.2	409	1.6	-63	-13.3

자료: 통계청(2012.6), 「2012년 5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률은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25~29세 청년층에서 0.5%p 감소한 반면, 20~24세의 경우 모두 1.8%p 증가. 15~19세는 변동 없음.
 -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24세가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한 반면, 15~19세는 5천 명, 25~29세는 13만 8천 명이 감소
-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경우 고용률

증가 효과가 나타남. 남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1만 9천 명, 고용률은 0.3%p 감소하였으며, 여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1만 1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

-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가 2만 6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률은 0.2%p 증가. 반면, 전문대졸자는 취업자 수가 3만 9천 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1%p 증가하여 고용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대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가장 크게 감소. 취업자 수는 5만 2천 명이 감소하였고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7%p 감소

표 6.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4,028	42.0	3,868	40.7	3,998	42.1	-30	0.1p	
연령별	15~19세	286	8.5	214	6.5	281	8.5	-5	0.0p
	20~24세	1,213	45.5	1,273	45.6	1,326	47.2	113	1.8p
	25~29세	2,529	71.0	2,381	70.0	2,391	70.5	-138	-0.5p
성별	남자	1,905	40.4	1,825	38.9	1,885	40.1	-19	-0.3p
	여자	2,124	43.6	2,043	42.5	2,113	44.0	-11	0.4p
학력	중졸 이하	97	3.8	98	3.8	106	4.2	9	0.4p
	고졸	1,714	42.0	1,526	39.2	1,688	42.2	-26	0.2p
	전문대졸	1,018	77.0	1,085	77.0	1,057	78.1	39	1.1p
	대졸 이상	1,200	74.7	1,160	71.3	1,148	72.0	-52	-2.7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1천 명(1.1%) 감소한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1만 1천 명(3.9%) 증가
 - 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는 3.3% 증가

표 7.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 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4,028	100.0	3,868	100.0	3,998	100.0	-30	-0.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740	92.8	3,586	92.7	3,699	92.5	-41	-1.1
	-상용근로자	2,141	53.1	2,147	55.5	2,111	52.8	-30	-1.4
	-임시근로자	1,236	30.7	1,176	30.4	1,233	30.8	-3	-0.2
	-일용근로자	363	9.0	264	6.8	354	8.9	-9	-2.4
	비임금근로자	289	7.2	282	7.3	300	7.5	11	3.9
	-자영업자	200	5.0	197	5.1	207	5.2	7	3.3
	-무급가족종사자	88	2.2	85	2.2	93	2.3	4	5.0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572	14.2	589	15.2	645	16.1	73	12.7
	36시간 이상	3,392	84.2	3,233	83.6	3,295	82.4	-97	-2.9
	일시휴직	64	1.6	47	1.2	59	1.5	-6	-8.6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고령층 취업자는 540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9천 명, 고용률 1.0%p 증가
 - 고용률의 경우 성별로는 남자가 전년 동월 대비 1.2%p,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2.5%p로 가장 크게 증가

표 8. 고령층(55~7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5,015	49.9	5,484	51.9	5,404	51.0	389	1.0p	
성별	남자	2,934	62.7	3,196	64.8	3,168	63.9	234	1.2p
	여자	2,081	38.8	2,289	40.6	2,236	39.6	155	0.8p

〈표 계속〉

		2011.7		2012.6		2012.7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학력	중졸 이하	3,046	47.3	3,302	49.8	3,244	48.8	198	1.5p
	고졸	1,405	54.8	1,560	55.2	1,542	54.3	137	-0.5p
	전문대졸	79	58.3	104	62.2	101	60.7	23	2.5p
	대졸 이상	486	53.8	519	54.6	516	54.3	31	0.5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8.6%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9% 증가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2%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7.1%, 무급가족종사자는 6.1% 증가

표 9.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 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015	100.0	5,484	100.0	5,404	100.0	389	7.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488	49.6	2,792	50.9	2,702	50.0	214	8.6
	-상용근로자	1,023	20.4	1,148	20.9	1,147	21.2	124	12.1
	-임시근로자	957	19.1	1,099	20.0	1,073	19.9	116	12.1
	-일용근로자	508	10.1	545	9.9	482	8.9	-26	-5.2
	비임금근로자	2,527	50.4	2,692	49.1	2,702	50.0	175	6.9
	-자영업자	2,018	40.2	2,145	39.1	2,162	40.0	144	7.1
	-무급가족종사자	509	10.2	548	10.0	540	10.0	31	6.1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1,252	25.0	1,119	20.4	1,263	23.4	11	0.9
	36시간 이상	3,654	72.8	4,299	78.4	4,047	74.9	394	10.8
	일시휴직	110	2.2	66	1.2	94	1.7	-16	-14.5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실업자는 남녀 모두 감소

- 실업자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50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9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29만 4천 명으로 1만 3천 명 감소
 - 실업률은 남자는 3.3%, 여자는 2.7%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3%p, 0.2%p 감소
- 연령별 실업자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대(20~29세)와 50대(50~59세)의 경우는 증가
 - 실업률 또한 2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 20대와 50대는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중졸 이하 집단에서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 명, 고졸에서 5만 명, 전문대졸에서 2만 명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 4만 1천 명 증가
 - 실업률의 경우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0.2%p, 고졸에서는 0.5%p, 전문대졸에서는 0.8%p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0.5%p 증가

표 10.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실업자	실업률	
	전체	837	3.3	822	3.2	795	3.1	-42	-0.2p	-5.0
성별	남자	530	3.6	505	3.4	501	3.3	-29	-0.3p	-5.5
	여자	307	2.9	317	2.9	294	2.7	-13	-0.2p	-4.2
연령	15~29세	332	7.6	323	7.7	314	7.3	-18	-0.3p	-5.4
	· 15~19세	55	16.0	23	9.7	35	11.0	-20	-5.0p	-36.4
	· 20~29세	278	6.9	300	7.6	279	7.0	2	0.1p	0.6
	30~39세	184	3.1	180	3.0	173	2.9	-11	-0.2p	-6.0
	40~49세	138	2.0	141	2.1	122	1.8	-16	-0.2p	-11.6

<표 계속>

		2011.7		2012.6		2012.7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연령	50~59세	107	2.0	113	2.0	118	2.1	11	0.1p	10.3
	60세이상	77	2.5	65	1.9	68	2.0	-9	-0.5p	-11.7
학력	중졸 이하	118	2.3	105	2.0	106	2.1	-12	-0.2p	-10.4
	고졸	423	4.1	365	3.6	373	3.6	-50	-0.5p	-11.8
	전문대졸	132	4.1	147	4.2	111	3.2	-20	-0.8p	-15.4
	대졸 이상	164	2.4	205	2.9	205	2.9	41	0.5p	24.9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31만 4천 명, 실업률 7.3%(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

- 성별로 남자는 8.2%, 여자는 6.4%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5%p, 0.2%p 감소

표 11.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332	7.6	323	7.7	314	7.3	-18	-0.3p	-5.5
성별	남자	182	8.7	168	8.4	169	8.2	-13	-0.5p	-7.3
	여자	150	6.6	155	7.1	145	6.4	-5	-0.2p	-3.2
학력	중졸 이하	10	9.0	9	8.1	9	7.6	-1	-1.4p	-9.0
	고졸	194	10.2	135	8.1	154	8.4	-40	-1.8p	-20.6
	전문대졸	61	5.6	80	6.9	53	4.8	-8	-0.8p	-12.6
	대졸 이상	67	5.3	99	7.9	98	7.9	31	2.5p	45.3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 실업자 12만 8천 명, 실업률 2.3%(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성별로 남자는 2.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하였고, 여자는 1.4%로 0.1%p 감소

표 12. 고령층(55~7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증감		증감률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116	2.3	119	2.1	128	2.3	12	0.0p	10.0	
성별	남자	85	2.8	85	2.6	95	2.9	11	0.1p	12.6
	여자	31	1.5	35	1.5	32	1.4	1	-0.1p	2.8
학력	중졸 이하	65	2.1	63	1.9	68	2.1	3	0.0p	5.0
	고졸	41	2.8	44	2.7	45	2.9	4	0.0p	10.6
	전문대졸	1	0.7	0	0.0	0	0.0	-1	-0.7p	-100.0
	대졸 이상	10	1.9	12	2.3	14	2.6	5	0.7p	47.4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

- 활동 상태별로는 연로(15만 9천 명), 가사(14만 4천 명), 정규교육기관 통학(5만 9천 명), 취업 준비(8천 명) 등에서 증가
 - 반면, 쉬었음(9만 2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4만 7천 명), 진학 준비(3만 1천 명), 육아(1만 4천 명) 등에서 감소
- 구직단념자는 2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천 명 감소

표 13.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5,614	100.0	15,622	100.0	15,727	100.0	113	0.7
육아	1,440	9.2	1,424	9.1	1,426	9.1	-14	-1.0
가사	5,747	36.8	5,764	36.9	5,891	37.5	144	2.5
정규교육기관 통학	3,775	24.2	3,956	25.3	3,834	24.4	59	1.6
입시학원 통학	94	0.6	95	0.6	94	0.6	0	0.1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235	1.5	186	1.2	188	1.2	-47	-20.0
취업 준비	339	2.2	360	2.3	347	2.2	8	2.3
진학 준비	154	1.0	118	0.8	123	0.8	-31	-20.1
연로	1,634	10.5	1,796	11.5	1,793	11.4	159	9.7
쉬었음	1,560	10.0	1,381	8.8	1,468	9.3	-92	-5.9
기타	636	4.1	541	3.5	563	3.6	-72	-11.4
구직단념자	237	1.5	205	1.3	205	1.3	-33	-13.8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1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7천 명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정규교육기관 통학 청년층(5만 9천 명), 취업 준비 중인 청년층(1만 6천 명)은 증가한 반면, 육아(4만 1천 명), 가사(5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3만 5천 명), 진학 준비(3만 1천 명), 쉬었음(6천 명) 등에서 감소
- 구직단념 청년층은 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증가

표 14. 활동 상태별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223	100.0	5,304	100.0	5,186	100.0	-37	-0.7
육아	275	5.3	239	4.5	234	4.5	-41	-14.9
가사	123	2.4	110	2.1	118	2.3	-5	-4.3
정규교육기관 통학	3,735	71.5	3,917	73.8	3,794	73.2	59	1.6
입시학원 통학	93	1.8	95	1.8	93	1.8	0	-0.1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69	3.2	139	2.6	134	2.6	-35	-20.7
취업 준비	241	4.6	262	4.9	257	4.9	16	6.6
진학 준비	151	2.9	114	2.1	119	2.3	-31	-20.8
쉬었음	311	6.0	308	5.8	306	5.9	-6	-1.8
기타	125	2.4	121	2.3	132	2.5	7	5.6
구직단념자	57	1.1	55	1.0	58	1.1	1	1.8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학력별로 세분하여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졸 이하의 경우 남자는 80.8%, 여자는 82.2%가 정규교육기관 통학
- 대졸 이상에서 남자는 취업준비(40.0%)와 쉬었음(17.9%)의 비중이 높고, 여자는 육아(30.1%)와 취업준비(21.3%)의 비중이 높음.

표 15.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별 활동 상태(2012. 7)

(단위: 천 명, %)

	남자				여자				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전체	2,458	100.0	185	100.0	2,136	100.0	406	100.0	5,186
육아	0	0.0	0	0.0	112	5.2	122	30.1	234
가사	3	0.1	1	0.7	54	2.5	60	14.7	118
정규교육기관 통학	1,985	80.8	27	14.5	1,756	82.2	26	6.3	3,794
입시학원 통학	54	2.2	1	0.6	38	1.8	0	0.0	93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42	1.7	29	15.9	33	1.5	30	7.4	134
취업 준비	66	2.7	74	40.0	30	1.4	87	21.3	257
진학 준비	70	2.8	6	3.2	28	1.3	15	3.8	119
쉬었음	152	6.2	33	17.9	61	2.9	59	14.6	306
기타	87	3.5	14	7.3	24	1.1	7	1.8	132
구직단념자	20	0.8	11	5.8	11	0.5	17	4.1	58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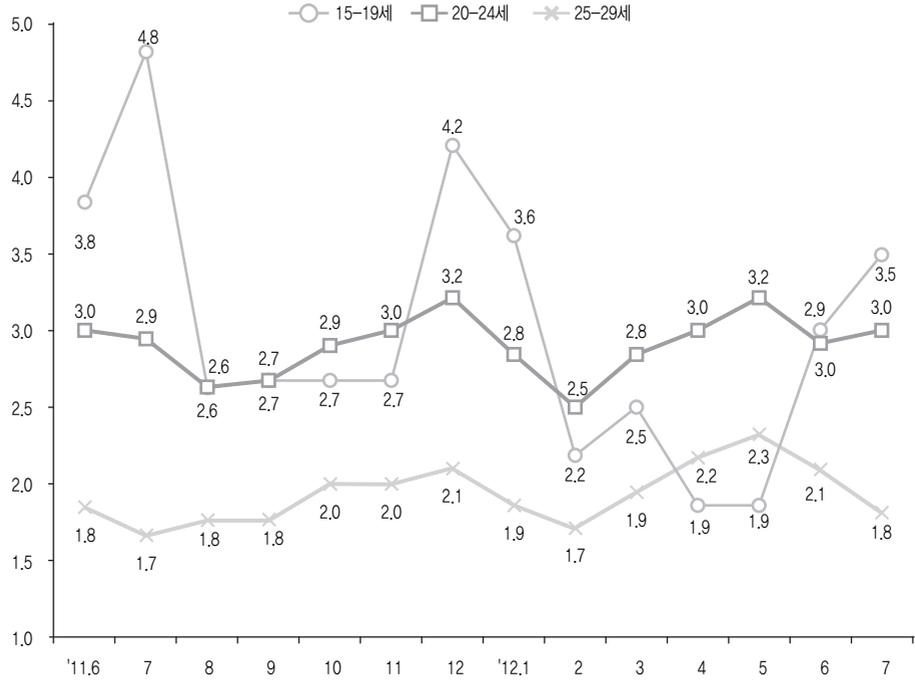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20대 초반과 후반 모두에서 소폭 증가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 비율은 2012년 7월 현재 20대 초반(20~24세)는 3.0으로 2011년 7월의 2.9에서 3.4% 증가, 20대 후반(25~29세)은 1.8로 2011년 7월 1.7에서 5.9% 증가

그림 3. 전체 실업을 대비 청년 실업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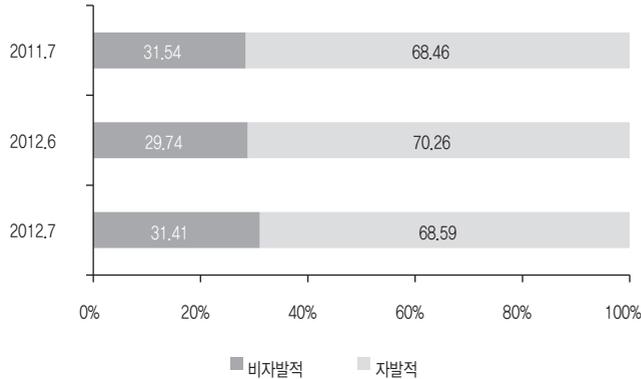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는 비율은 31.41%로 전년 동월 대비 0.13%p 감소

그림 4. 단시간 근로의 이유(자발적/비자발적)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 부진·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는 9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9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 증가, 여자는 43만 5천 명으로 3천 명 감소
 - 학력별로는 전문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2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59만 7천 명으로 1만 2천 명 증가

- 고용률은 18.1%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7.8%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 여자는 18.5%로 0.2%p 감소
 -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37.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감소한 반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30.4%로 0.6%p 증가

표 16.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918	18.0	738	14.8	932	18.1	14	0.1p	
성별	남자	479	17.3	395	14.5	497	17.8	17	0.4p
	여자	439	18.7	344	15.0	435	18.5	-3	-0.2p
학력	전문대	238	37.7	208	31.9	247	37.4	9	-0.2p
	대학교	585	29.8	447	24.5	597	30.4	12	0.6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
 - 성별로 남자, 여자 모두 20.0%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p, 0.9%p 감소
 -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1.9%로 전년 동월 대비 1.4%p 감소하였고,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우는 33.5%로 0.5%p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9.5%로 전년 동월 대비 2.6%p 감소
 - 성별로 남자는 11.1%로 전년 동월 대비 2.6%p 감소하였고, 여자는 7.6%로 2.7%p 감소
 - 학력별로는 현재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 대비 2.3%p 감소하였고, 현재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9.4%로 3.0%p 감소

표 17.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전체	20.4	12.1	15.9	7.0	20.0	9.5	-0.5p	-2.6p	
성별	남자	20.1	13.7	15.8	8.0	20.0	11.1	-0.1p	-2.6p
	여자	20.9	10.4	15.9	5.7	20.0	7.6	-0.9p	-2.7p
학력	전문대	43.3	13.1	34.3	6.9	41.9	10.7	-1.4p	-2.3p
	대학교	34.0	12.4	26.5	7.5	33.5	9.4	-0.5p	-3.0p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재학 중이면서 취업한 청년층 가운데 주요활동 상태가 '일하였음'인 인구는 37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4천 명 감소하여 3.6% 감소
 - 재학 중 취업 청년층 인구는 64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천 명 증가
 -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는 집단은 25만 7천 명으로 전체 재학 중 취업 청년층의 40.0%를 구성

표 18. 재학 중 취업 청년층(15~29세)의 주요활동 상태

(단위: 천 명, %)

	2011.7		2012.6		2012.7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626.3	100.0	461.6	100.0	643.4	100.0	17.2	2.7
일하였음	392.6	62.7	176.9	38.3	378.4	58.8	-14.1	-3.6
일시 휴직	10.7	1.7	1.4	0.3	6.9	1.1	-3.9	-35.9
정규교육기관 통학	222.0	35.4	281.9	61.1	257.2	40.0	35.2	15.8
기타	1.0	0.2	1.4	0.3	1.0	0.1	0.0	-3.8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은 감소

- 청년 NEET족 규모는 7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 감소
 - 성별로는 남자는 2천 명 증가한 반면, 여자는 2만 1천 명 감소
 - 연령별로는 10대(15세~19세)가 4천 명, 20대 초반(20세~24세)이 2천 명,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1만 4천 명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집단에서 1만 2천 명, 고졸에서 2만 4천 명, 전문대졸에서 5천 명 감소한 반면, 대졸 이상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1천 명 증가
- 전체 청년층 대비 NEET족 비율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0.1%p 증가, 여자는 0.3%p 감소
 - 연령별로는 20대 후반(25~29세)의 경우 0.1%p 증가한 반면, 20대 초반(20~24세)과 10대 후반(15~19세)은 각각 0.8%p, 0.1%p 감소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만 전년 동월 대비 1.4%p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NEET족 비율이 감소

표 19. 청년층(15~29세) NEET족 규모와 비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7		2012.6		2012.7				
							증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818	8.5	785	8.3	798	8.4	-19	-0.1p	
성별	남자	476	10.1	467	10.0	478	10.2	2	0.1p
	여자	342	7.0	318	6.6	321	6.7	-21	-0.3p
연령별	15~19세	119	3.6	111	3.4	116	3.5	-4	-0.1p
	20~24세	403	15.1	400	14.3	401	14.3	-2	-0.8p
	25~29세	374	10.5	355	10.4	360	10.6	-14	0.1p
학력	중졸 이하	46	1.8	36	1.4	34	1.3	-12	-0.4p
	고졸	522	12.8	475	12.2	499	12.5	-24	-0.3p

〈표 계속〉

		2011.7		2012.6		2012.7			
								증감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학력	전문대졸	131	9.9	124	8.8	126	9.3	-5	-0.6p
	대졸 이상	197	12.2	232	14.3	217	13.6	21	1.4p

주: NEET족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이 '쉬었음'+ '가사'(미혼) + '발령 대기'+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결혼 준비'+기타'인원으로 정의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일자리 동향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고용률 및 실업률 증가.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 청년층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2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는 1만 2천 명 증가.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5천 명 감소
- 취업자는 391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9천 명 감소, 실업자는 34만 2천 명으로 3만 1천 명 증가.
- 고용률은 41.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 실업률은 8.0%로 0.7%p 증가.

표 20.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5				2012.5							
	청년층 인구	15~19세	20~24세	25~29세	청년층 인구	증감	15~19세	증감	20~24세	증감	25~29세	증감
전체	9,614	3,354	2,667	3,594	9,512	-102	3,303	-51	2,790	122	3,419	-174
경제활동인구	4,240	220	1,307	2,714	4,253	12	245	25	1,418	111	2,590	-123
취업자	3,930	207	1,204	2,519	3,911	-19	230	23	1,278	74	2,403	-116
실업자	311	13	103	195	342	31	15	2	140	37	187	-8

<표 계속>

	2011.5				2012.5							
	청년층 인구	15~ 19세	20~ 24세	25~ 29세	청년층 인구	증감	15~ 19세	증감	20~ 24세	증감	25~ 29세	증감
비경제활동인구	5,374	3,134	1,360	880	5,259	-115	3,058	-75	1,372	12	829	-51
고용률	40.9	6.2	45.1	70.1	41.1	0.2p	7.0	0.8p	45.8	0.7p	70.3	0.2p
실업률	7.3	5.7	7.9	7.2	8.0	0.7p	6.0	0.3p	9.9	2.0p	7.2	0.0p

자료: 통계청,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학교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층의 비중은 고졸에 비해 대졸 이상에서 높음.**

- 직장체험 경험이 있는 청년층은 392만 2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41.2%가 직장체험을 함.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직장 체험자는 195만 3천 명으로 30.2%에 불과한 반면, 대졸 이상은 196만 9천 명으로 64.5%가 재학 혹은 휴학 중에 직장체험을 경험하였음.
- 직장체험 기간별로 살펴보면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6%p, 0.3%p 상승한 반면,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은 각각 0.6%p, 0.4%p 하락
 -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에서 '6개월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5.4%, 42.7%로 가장 높음.
 - '1개월 미만'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 14.2%로 나타나 대졸 이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1.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유무 및 기간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청년층 인구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청년층 인구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9,614	100.0	6,570	3,044	9,512	100.0	6,461	100.0	3,051	100.0
직장체험 경험 있음	4,147	43.1	2,099	2,048	3,922	41.2	1,953	30.2	1,969	64.5
- 1개월 미만	431	10.4	285	146	433	11.0	278	14.2	155	7.9
- 1~3개월 미만	1,069	25.8	585	484	1,025	26.1	548	28.1	476	24.2
- 3~6개월 미만	1,010	24.4	514	495	932	23.8	435	22.3	497	25.3
- 6개월 이상	1,637	39.5	715	922	1,532	39.1	692	35.4	840	42.7
직장체험 경험 없음	5,465	56.8	4,469	996	5,586	58.7	4,504	69.7	1,082	35.5
미상	2	0.0	2	0	3	0.0	3	0.1	0	0.0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학교 재학·휴학 중의 직장체험은 시간제 취업이 대부분이고 전일제 취업, 인턴의 순으로 나타남.

- 재학·휴학 중의 직장체험은 시간제 취업을 한 경우가 257만 9천 명으로 전체 청년층의 65.8%를 차지하고, 전일제 취업이 83만 8천 명으로 21.4%, 인턴이 29만 8천 명으로 7.6%를 차지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시간제 취업이 136만 8천 명(70.0%)으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 취업 45만 5천 명(23.3%), 인턴 8만 1천 명(4.1%) 순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은 시간제 취업 121만 2천 명(61.5%), 전일제 취업 38만 4천 명(19.5%), 인턴 21만 6천 명(11.0%)순으로 나타났고, 고졸 이하에 비해 인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시간제 취업의 비중은 65.8%로 전년 동월 대비 2.1%p 상승한 반면, 전일제, 학교의 현장 실습, 인턴,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의 비중은 감소

표 22.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 형태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직장체험 경험자	구성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직장체험 경험자	구성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4,147	100.0	2,099	2,048	3,922	100.0	1,953	100.0	1,969	100.0
전일제 취업	908	21.9	498	410	838	21.4	455	23.3	384	19.5
시간제 취업	2,643	63.7	1,421	1,222	2,579	65.8	1,368	70.0	1,212	61.5
학교의 현장 실습	163	3.9	32	130	129	3.3	29	1.5	100	5.1
인턴(기업 인턴 등)	320	7.7	107	213	298	7.6	81	4.1	216	11.0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56	1.3	15	41	47	1.2	8	0.4	39	2.0
기타	57	1.4	25	32	30	0.8	12	0.6	18	0.9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고졸 이하의 취업 경험 횟수가 대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최종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중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2만 8천 명 (88.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
 -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 경험이 있는 인구는 134만 4천 명으로 84.1%, 대졸 이상은 268만 3천 명으로 91.1%로 나타남.
- 취업 경험이 한 번 있는 경우는 40.7%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두 번 있는 경우는 25.5%로 0.2%p 감소, 세 번 있는 경우는 17.9%로 0.5%p 증가, 네 번 이상인 경우는 15.9%로 0.2%p 감소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취업 경험이 한 번 있는 인구는 26.3%, 두 번은 23.7%, 세 번은 21.8%, 네 번 이상은 28.2%인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는 한 번이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두 번은 26.5%, 세 번은 15.9%, 네 번 이상은 9.7%로 대졸 이상의 경우 취업 경험 횟수가 고졸 이상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졸업·중퇴 후 취업경험 여부 및 횟수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졸업·중퇴 청년층인구	4,615	100.0	1,678	2,937	4,545	100.0	1,598	100.0	2,946	100.0
취업경험 있음	4,094	88.7	1,411	2,683	4,028	88.6	1,344	84.1	2,683	91.1
- 한 번	1,668	40.7	388	1,280	1,639	40.7	353	26.3	1,286	47.9
- 두 번	1,052	25.7	325	727	1,029	25.5	318	23.7	711	26.5
- 세 번	713	17.4	276	437	719	17.9	293	21.8	426	15.9
- 네 번 이상	661	16.1	422	238	640	15.9	380	28.2	261	9.7
취업경험 없음	521	11.3	267	254	517	11.4	254	15.9	263	8.9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고, 평균 소요기간은 0.4개월 감소**
 - 3개월 미만인 경우는 52.3%, 3년 이상인 경우는 8.3%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p, 0.7%p 감소한 반면, 3~6개월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은 각각 0.3%p, 0.1%p, 0.3%p 증가
 - 고졸 이하는 3년 이상이 16.4%, 2~3년 미만이 7.2%로 대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첫 취업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0.5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4개월 감소
 - 고졸 이하는 16.3개월, 대졸 이상은 7.6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5개월, 0.2개월 감소

표 24.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의 소요기간

(단위: 천 명, %, 개월)

	2011.5				2012.5					
	전체	구성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체	구성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임금근로자	3,959	100.0	1,351	2,607	3,897	100.0	1,291	100.0	2,606	100.0
3개월 미만	2,073	52.4	616	1,456	2,040	52.3	553	42.8	1,487	57.1
3~6개월 미만	560	14.1	179	381	561	14.4	187	14.5	375	14.4
6개월~1년 미만	362	9.2	93	269	359	9.2	112	8.6	248	9.5
1~2년 미만	412	10.4	141	271	408	10.5	135	10.5	273	10.5
2~3년 미만	195	4.9	81	114	204	5.2	93	7.2	110	4.2
3년 이상	357	9.0	241	116	325	8.3	212	16.4	113	4.4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	10.9		16.8	7.8	10.5		16.3		7.6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산업별 첫 일자리를 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대졸 이상의 경우 사업·공공·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산업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5%), 도소매·음식숙박업(26.0%), 광업·제조업(17.6%)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이 39.4%로 가장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사업·공공·개인서비스업이 50.1%로 가장 높음.
 - 고졸 이하는 광업·제조업이 26.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1.3%의 비중을 보여 대졸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표 25.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4,094	100.0	1,411	2,683	4,028	100.0	1,344	100.0	2,683	100.0
농림어업	25	0.6	15	10	24	0.6	19	1.4	5	0.2
광업·제조업	701	17.1	337	363	710	17.6	362	26.9	348	13.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3,368	82.3	1,059	2,310	3,294	81.8	964	71.7	2,330	86.8
- 건설업	175	4.3	59	116	165	4.1	53	3.9	112	4.2
- 도소매·음식숙박업	1,048	25.6	589	459	1,049	26.0	529	39.4	520	19.4
-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1,642	40.1	304	1,338	1,630	40.5	286	21.3	1,344	50.1
- 전기·운수 통신·금융	503	12.3	106	396	450	11.2	96	7.1	354	13.2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 직업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가장 많으며 관리자·전문가, 사무종사자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16만 9천 명으로 29.0%, 관리자·전문가는 103만 1천 명으로 25.6%, 사무종사자는 102만 6천 명으로 25.5%의 비중을 차지함.
-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8%p, 0.7%p 하락한 반면, 관리자·전문가(0.3%p), 서비스·판매종사자(1.8%p), 농림어업 숙련종사자(0.1%p),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0.4%p) 비중은 모두 증가
-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는 서비스·판매종사자(43.1%)와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0.4%)의 비중이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은 관리자·전문가(35.4%)와 사무종사자(31.3%)의 비중이 높음.

표 26.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직업별 분포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전체	4,094	100.0	1,411	2,683	4,028	100.0	1,344	100.0	2,683	100.0
관리자·전문가	1,036	25.3	91	945	1,031	25.6	81	6.0	950	35.4
사무종사자	1,119	27.3	198	921	1,026	25.5	185	13.8	841	31.3
서비스·판매종사자	1,114	27.2	605	508	1,169	29.0	579	43.1	589	22.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	0.3	9	5	14	0.4	8	0.6	7	0.2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485	11.8	272	213	492	12.2	274	20.4	218	8.1
단순노무 종사자	326	8.0	235	92	296	7.3	217	16.1	79	3.0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졸업·중퇴 후 취업 유경험자의 첫 일자리로는 임금근로가 96.8%, 전일제 근로가 85.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가 가능한 형태가 62.6%로 나타남.
 - 시간제 근로는 11.6%, 일시적 일자리는 11.4%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음.
 -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 시간제 근로가 17.6%로 대졸 이상에 비해 9%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 또한 18.2%로 대졸 이상(8.0%)보다 10.2%p 높게 나타남.
 -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모두 19.9%로 동일

표 27.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의 고용 형태별 분포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전체	4,094	1,411	2,683	4,028	100.0	1,344	100.0	2,683	100.0	
입금근로자	3,959	1,351	2,607	3,897	96.8	1,291	96.1	2,606	97.1	
계약 여부별	계약기간 정함	965	295	670	918	22.8	290	21.5	629	23.4
	1년 이하	827	257	571	802	19.9	267	19.9	535	19.9
	1년 초과	138	39	99	116	2.9	22	1.6	94	3.5
	계약기간 정하지 않음	2,993	1,056	1,937	2,979	74.0	1,002	74.5	1,977	73.7
	계속근무 가능	2,482	761	1,721	2,520	62.6	757	56.3	1,763	65.7
	일시적 일자리	511	296	216	459	11.4	245	18.2	214	8.0
근무 형태별	전일제	3,518	1,110	2,408	3,431	85.2	1,055	78.5	2,376	88.5
	시간제	440	241	199	466	11.6	236	17.6	230	8.6
자영업자	74	29	45	79	2.0	27	2.0	52	1.9	
무급가족종사자	61	30	31	51	1.3	26	1.9	25	0.9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첫 일자리를 그만둔 가장 큰 사유인 근로여건 불만족의 비율 증가

- 이직 사유로서 근로여건 불만족을 답한 비율은 44.0%로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경우 44.7%로 고졸 이하 42.9%보다 1.8%p 높음.
- 다음으로 개인·가족적 이유 18.0%,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8.8%, 전망 부재 및 일의 완료, 계약 기간 종료가 각각 8.6%로 나타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일의 완료, 계약 기간 종료에 의한 이직이 대졸 이상에서 10.5%로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4.6%p 높았으며,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아서 이직한 비율 또한 고졸보다 2.1%p 높게 나타남.

표 28.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

(단위: 천 명, %)

	2011.5				2012.5					
	이직 경험자	고졸 이상 구성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이직 경험자	고졸 이하 구성비	고졸 이상	대졸 이상 구성비	대졸 이상 구성비	
전체	2,723	100.0	1,141	1,582	2,682	100.0	1,092	100.0	1,590	100.0
근로여건 불만족	1,151	42.3	477	674	1,179	44.0	468	42.9	711	44.7
개인·가족적 이유 (건강, 육아, 결혼등)	501	18.4	268	233	484	18.0	237	21.7	247	15.5
전망이 없어서	268	9.9	104	164	232	8.6	96	8.8	136	8.5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음	198	7.3	63	135	237	8.8	83	7.6	154	9.7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	242	8.9	65	177	231	8.6	64	5.9	167	10.5
직장 휴업, 폐업, 파산 등	68	2.5	30	38	47	1.8	24	2.2	23	1.4
그 외	294	10.8	133	160	272	10.2	119	10.9	153	9.6

주: 1) 이직 경험자는 실업·비경제활동 인구 포함

2) '그 외'는 회사 내 인간관계, 창업 또는 가족사업 참여, 일거리가 없거나 회사사정 어려움, 권고사직, 기타를 포함

자료: 통계청(2012),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¹⁾ 100%

(작성: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